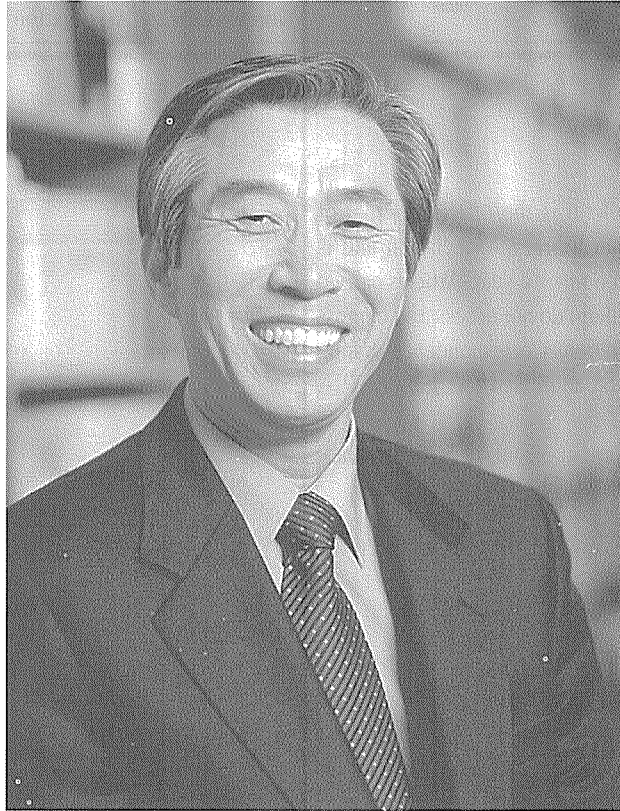


권두인터뷰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1979. 4. 2 ~ 현재  
도서출판 일진사 창립
- 1992. ~ 1996. 2.  
(사)대한출판문화협회 감사
- 1998. ~ 1999. 2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 1994. ~ 1998.1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이사
- 1998. ~ 2001.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부회장
- 2001. 7 ~ 현재  
(사)한국2중 교과서협회 이사
- 2002. 2 ~ 현재  
(재)한국출판금고 이사
- 2002. 2 ~ 현재  
(재)한국출판연구소 이사
- 2002. 2 ~ 현재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1993.  
문화체육부장관상 표창  
(10월 문화의 달 기념)

우선 늦게나마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서울국제도서전 등 굵직굵직한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실 틈도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도서관문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판과 도서관, 독서 등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6월 초 '2002 서울국제도서전'을 개최하셔서 무사히 끝나치셨지요. 이번에는 우리 한국도서관협회도 참여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기간에 열려서인지 방문객 수도 줄었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국제도서전을 출판계가 다른 부분, 즉 도서관계나 문화계, 일반 독자 등과 만나는 좋은 마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도 귀 협회와 매년 '전문인의 날' 세미나를 개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서전에 도서관계 인사들도 많이 참여하여야 할텐데 함께 노력해 나가

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이번 도서전의 의의와 성과를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도서전 발전에 도서관계가 어떻게 참여하면 좋겠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 드컵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 간 개최된 제8회 서울 국제도서전에는 국내 146사, 해외 71사가 참여하여 14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다녀감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인 행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전년(27만 명)에 비해 관람객이 줄어들었지만 윌드컵의 열기 속에서도 매년 도서 전시장을 찾아왔던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올해에도 책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전시장을 찾아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윌드컵과 동기간에 개최됨으로 인해 국제 우수 출판사의 참가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아동 교육 분야의 급성장이라는 한국 출판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듯 일반 단행본사의 참여가 미흡함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사가 되었다는 질책의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추최측이 더욱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야할 사항들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올해 도서전에는 귀 협회가 처음으로 부스를 마련하여 참여함으로써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국민 독서 환경 개선과 독서력 증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귀 협회와 4년째 함께 개최하고 있는 전문인 세미나의 경우도 도서관 및 출판계 관계자들이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방문하시어 적극 참여해 주심으로써 대단히 흐뭇하고 의미있는 행사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선진국의 경우는 도서전 기간이 되면 출판계뿐 아니라 도서관계, 독서 관련 단체, 서점계, 저작권 관련 업체, 인쇄계, 잡지계, 언론계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같이 개최함으로써 책에 대한 열기를 집중적으로 쏟아냅니다. 전문인들은 전문인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진지하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전시장과 행사장을 오가며 책의 축제를 활용하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단체들이 이러한 인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 협회에서는 고정적으로 도서전을 통해 함께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로서 국민독서 환경과 독서증진에 의미가 깊다고 하셨습니다.

도서전 발전에 도서관계가 어떻게 참여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글썽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미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는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좀더 욕심을 가진다면 도서전을 더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스도 좀더 크게 마련하시고, 세미나를 보기위해 참석하는 사서들 외에 좀더 많은 사서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평소에 개최하고 계신 다른 행사들도 도서전과 함께 기간을 맞추어 개최하는 방안 등입니다. 도서관대회 같은 경우에도 매년 가을에 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사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되어야겠지만 도서전과 같은 기간에 열릴 수 있다면 참석하는 사서분들이 도서전 현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출판사를 직접 만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분명 있으실 걸로 압니다. 비단 도서관대회가 아니라도 연례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가 있으시다면 도서전을 통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근래에 와서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협력관계가 매우 돈독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서문화와 도서관 정책 개혁의 목소리를 같이 내 왔습니다.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매우 긴밀한 관계이면서도 서로 다른 점도 많아서 함께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 동안 출판계는 도서관 발전을 위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도서관계도 자발적인 자기개혁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지적 입장에서 우리 도서관계에 대한 충고라든가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문** 화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도서관계와 출판계는 상호 여러 문제에서 강력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도서관계와 출판계는 그간 만족스럽고도 긴밀한 협력을 해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모든 지식과 문화 역량의 출발점인 국민들의 독서력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 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서와 문화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서관계는 기본적으로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더욱 개방적이고 유용한 시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만, 도서관의 예산확충으로 장서를 늘리는 일이 아주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작권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저작권 보호와 이의 적절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협력의 과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두 부문의 협력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상적이고 전문적으로 두 부문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출판 산업과 도서관계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면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방송 등의 관심에 힘입어 독서부문에 새로운 활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조장되고 있어 출판계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95년의 역사를 가진 종로서적의 부도사태 등 다소 혼란스러운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판계에서는 어떤 독서운동을 계획하고 계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독서운동을 전개할 때 우리 도서관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 계가 미래의 문제를 책에 걸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이 입시 교육 등에 밀려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방송이나 언론에서 독서에 관한 붐을 많이 조성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근원적인 사고의 전환 없이 일시적인 '바람'으로 머물고 만다면 그리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 운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하고자 9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독서대상>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굳게 잠겨 있던 학교 도서관이 빗장을 풀고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쓸만한 책으로 채워진 개가식 도서관으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독서 운동의 보람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협회는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연중 캠페인 '다시 책이다' 사업과 지하철 책열차 '메트로 북메세' 운영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출판계가 독서 운동을 하면 흔히들 '책을 팔기 위해' 하는 '장사' 로만 비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다른 단체들에서 벌이고 있는 독서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개인 사업체가 아니고 행정적인 여러 제약점이 있다보니 독서 운동을 추진할 때도 어떤 적극적인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심점이나 재정적인 뒷받침 면에서 약하다고나 할까요? 그러한 면을 극복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이런 말씀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이 출판사의 가장 큰 고객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도서관 사서분들 중에는 그런 의식보다는 '독자들을 위한 것인데 책 몇 권 쬐어야'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출판사의 무료 책 기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고 그 역시 독자를 위한 노력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만 출판·도서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

최근 저작권법 개정 문제가 큰 관심사입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일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서관들은 저작권자와 출판계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상황이나 일부 다른 이념이나 주장에 의해 마치 도서관들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 도서관들이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출판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간의 저작물 전송·복제'는 사실 그 명분이 어떠한 간에 내용에 있어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저작자나 출판사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불합리한 법 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출혈을 비롯한 출판계는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개정 작업에 들어간 저작권법 개정(안)에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에 대한 권리와 독자의 알 권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일 수 있고,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독자의 알

권리에 비중을 두고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저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심과 지식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식의 발전과 가치 있는 연구, 창의적인 출판물 생성이라는 점까지 고려가 된다면 도서관계가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야할지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서로 순차 관계에 있는 양 업계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그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지식의 생산과 활동이 확대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2006년 국제적인 행사(국제도서관협회연맹 서울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출판협회도 2008년 국제출판협회총회를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러 국제 도서전에 참가하고 계시는데, 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출판이나 도서관계의 국제적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등의 여파로 출판이나 도서관계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우**리 나라 도서관의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자면 벌써 널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서관 수, 장서 수에 있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도서관이 도서관 원래의 역할보다는 '학습실'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나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나라 도서관계가 국제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뛰어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 도서관 구축, 도서의 디지털화 사업 등일 것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도서관계에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출판의 경우는 우리 나라가 세계 10대 출판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해 출판 종수 및 부수 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이며 출판의 기술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출판인들이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는 순수 창작 도서와 번역 도서의 비율, 또한 우리 도서의 해외 진출입니다. 출판에 있어서 해외 무역 역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화는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추세를 어떤 분야도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출판계도 예외는 아니지요. 세계적 멀티미디어 그룹의 국제 출판 시장 장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소수 언어가 이미 사라졌거나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출판을 포함한 문화 분야 장려를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한편 컴퓨터 보급의 확산으로 DTP가 활성화되면서 소자본으로도 출판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하여 많은 소수 언어의 도서들이 출판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출협회장으로 앞으로 출판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협회장이시면서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CEO이시기도 한데 출판인으로서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시는지요? 혹시 도서관계 사람들에게 권하시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세기는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앞서 나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출판계 역시 이런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 출판계는 온라인 서점들의 할인 공세로 도서정가제가 붕괴되고 출판 유통 시장이 어지러워지는 등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출판계 공동의 발전 방안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회장이 된 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불법 복사·복제 근절,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출판계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이 외에도 출판진흥기금의 확충,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의 증액 등 문화 부문 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캠페인인 ‘다시 책이다’의 각종 사업에도 관련 단체와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하철 책열차 ‘메트로 북메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제 도서전에 보다 많은 출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APPA 회장국 및 IPA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함으로써 우리 출판의 세계 진출에도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판계의 상징적인 ‘종로서적’을 비롯한 중대형 서점이 최근 2~3년 사이에 2,000여 개가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그저 단순한 한 서점의 붕괴가 아니라 문화 공간의 붕괴이고, 나아가 출판계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누가 책을 죽이는가)(사노 신이치 지음, 한기호 옮김)라는 책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점’ ‘유통’ ‘출판사’ ‘편집자’ ‘도서관’ 관계자들에게도 급격한 출판 환경의 변화와 위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EXCO** DAEGU  
DAEGU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 2002년 9월 26일(목)~28일(토)
-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 개최식, 제8회 독서문화상 시상식(문화관광부), 각종세미나, 워크숍, 포럼, 라운드테이블, 도서관 문화 및 정보화 관련 전시회 등
- 문의 : 협회사무국(02-535-4868)